

순천 조례호수공원 절반 축소

市, 농촌공사 땅 2만8,000평 매입 않고 10월께 착공

당초 계획서 후퇴…시정 신뢰도 타격

5만5천여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던 순천 조례호수 공원이 절반으로 축소돼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폐적으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크게 미흡할 전망이다.

순천시는 최근 그동안 사업시행 여부를 물려싸고 논란이 됐던 조례호수공원을 오는 10월께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사업은 당초 민선3기 조충훈시장 시절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돼 이름뿐인 호수공원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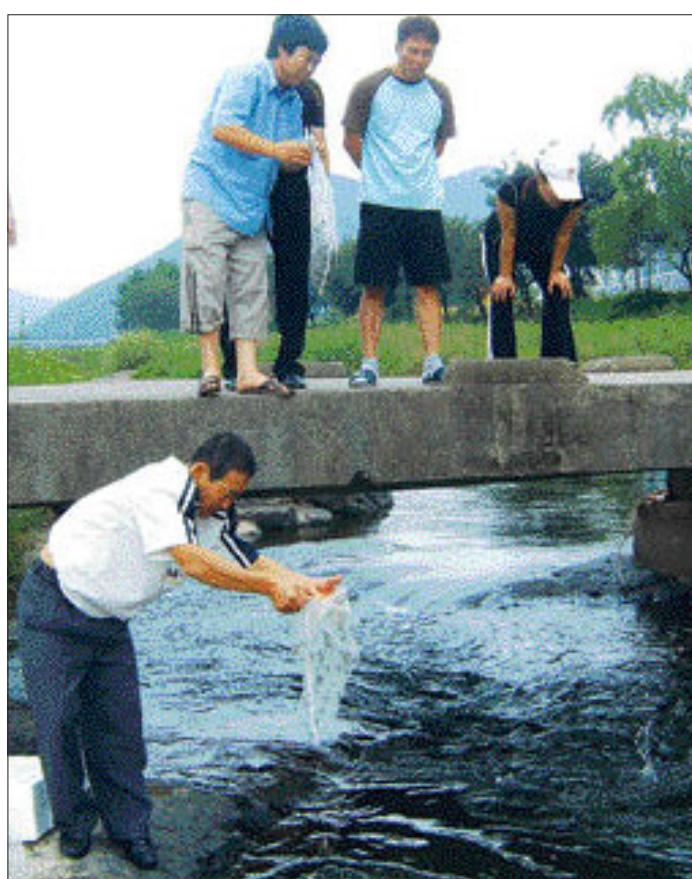
순천시는 10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축 야산 등 2만7천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2억원을 들여 동축 야산 산책로 조성 및 저수지 수문과 방수로 설치만으로 공원조성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당초 매입할 계획이었던 농촌공사 소유 2만8천평 부지는 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유로 매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는 오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단계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2단계 사업 역시 주후 사업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 축소로 조례저수지 인근 부지만 매입한 채 시설투자가 극히 적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당초 약속했던 주요 시책이 축소됨에 따라 시정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순천시관계자는 “호수공원 조성에 지나지 않게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는 여론이 많아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무력무력 자라거라” 순천시가 지난 5일 도심 청정하천 인동천에 잎어, 칡개, 붕어 등 7만 마리를 방류했다. 시는 내년 5월께 이를 물고기의 개체수를 확인해 방류하는 미릿수를 늘리는 등 수산자원 조성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시 평생학습 시범도시 선정

순천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개인별 평생학습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도시’에 선정됐다.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사업’이란 지자체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개인

학습기록·관리 교육부 인증 전국 7곳…2008년까지 운영

이 비형식, 무형식적으로 학습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해 학습결과를 수준별·유형별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도시 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생학습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57개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공모한 결과 순천시 등 7개 도시가 시범운영도시로 지정됐다.

시가 시범운영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운영을 위한 기본조성과 운영경비 등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올해 9월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한 마을全가구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광양시 관동마을 66농가
밤·매실·단감등 공동출하

한 마을 전 농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해 화제다.

광양시 다압면 관동마을은 지난 1일자로 전남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관동마을은 자체 구성한 ‘귀골친환경농협회’라는 이름으로 마을 야산과 과수원 210ha에서 생산되는 밤, 매실, 배, 단감 등을 친환경인증 마크가 새겨진 포장지로

포장해 출하를 할 수 있게 됐다.

관동마을 전체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기 까지는 이 마을 방선호(55) 이장의 역할이 컸다.

이미 5년전부터 친환경 농법에 관심을 가진 방 이장은 자신의 밤나무 해충방제를 하면서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식용유과 청약고주 등을 혼합한 친환경 차제를 사용, 2004년 친환경 인증을 먼저 획득했다.

방 이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에 미온적인 주민들을 설득,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여수역~수정동 고가도로 건설

총길이 886m 8차로…국비 211억원 확보

상습 교통 정체구간인 여수역과 수정동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설치 사업이 금년에 추진된다.

여수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여수역과 수정동을 잇는 수정 고가도로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11억원의 국비 확보가 성사돼 사업추진이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수정 고가도로는 교량 540m 등 총연장 886m에 8차로 규모로 신설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시 자·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시민아파트 앞 사거리 교

차로 구간은 물론, 오동도 입구에서 여수역 까지 시가지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여수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제 2돌산대교 사업과 연결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구간 중 시민아파트 앞 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설계돼 오동도 입구의 과다한 교통량과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도로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여수=박상규기자 ykpark@

/지역 단신/

광양만권 투자환경 설명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수도권 지역 제조업체 임직원 100여명을 초청, ‘광양만권 투자환경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광양시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협회가 후원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율촌1산단, 해룡산단, 수산물가공유통단지 조성현황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광양만권내 입주기업 성공사례와 의사왕을 청취한다. 자유구역 관계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과 각종 인센티브 등을 중점 설명, 반드시 투자 유치를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여수 건설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여수지역 건설 노사는 9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임단협 협상을 갖고 단협 일원화, 임금 인상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수건설노조의 협상은 지난 5월21일 사측과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110여일 만에, 지난달 18일 정의행위 돌입 결의 이후 22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이날 그동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합원 가입 범위에 있어 정규직·관리직 직원을 포함시키로 해 계전·플랜트간 단협 일원화가 가능하게 됐다.

또 임금의 경우 플랜트 부문은 5%, 계전은 3.5%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추석 유급 일수도 기준 1일에서 3일로 확대키로 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무 앤 452-8535	나 주 332-5544 나주남부 334-6969
광 양 792-8111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보 성 853-9700	완 도 554-6677	경 상 392-7000
순 천 746-8111	영 광 351-0055	영 앙 473-2340
고 흥 833-9900	신 안 243-3758	영 흥 863-8822
녹 동 842-2121	진 도 543-0100	광 산 944-0444
구 레 783-8111	강 진 433-8355	고 청 564-1919
국 성 362-8111	합 평 324-8111	순 청 653-6155

[광주일보]

[여수일보]

[전주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부산일보]

[경인일보]

[경기일보]

[인천일보]

[제주일보]

[전북일보]

[전주일보]

[여수일보]

[광주일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